

에너지 정책

대한상공회의소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 제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0일 고유가에 대응능력 강화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기반설비 확충등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정책방향' 이룸으로 정부에 촉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가격 결정,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 에너지 기반설비에 투자 확대, 캠페인성 처방 지양 등에 대해 건의했다. 상공회의소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가격 결정으로 소비자가 에너지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자연스럽게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함으로써 효율적 에너지 소비생활을 정착시킬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신사옥 이전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가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에서 지난달 22일 입주식을 가졌다. 창립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한국냉동공조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제 한국냉동공조협회는 대지 150평에 건평 550평 규모, 협회는 4층과 5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다. 이날 산자부 이희범 장관, 신성이엔지 이완근 회장, 범양냉방공업 장영근 회장, 에이알 한승일 회장, 에너지관리공단 김균섭 이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장석용 이사, 회원사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케너텍 열병합발전 뛰어들어

아파트 등 소형 집단난방 및 에너지 절감 전문 업체인 케너텍(대표 정복임)이 대형 열병합 발전사업에 본격 뛰어 들었다. 케너텍은 관계자는 "1일 대전 대덕구 문평 신지동 일대 제 3,4 산업단지 내 15개 중소 제조업체와 공단주변 4,455 가구 아파트 단지에 증기와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열병합발전소를 설립,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전 열병합발전소는 55%의 지분을 가진 조선내화와 케너텍(25.2%) 포스코 건설(19.8%)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기존의 대전 3,4산업단지를 인수해 세웠고 케너텍이

경영 및 운영을 맡는다. 신임 대표이사도 케너텍의 공동 대표인 신동오씨가 선임됐다. 정복임 케너텍 사장은 "대전 열병합 발전은 주력제품인 소규모 열병합발전사업과 한전을 거치지 않고 민간에 직접 전기를 공급 판매하는 구역형 집단 에너지 사업에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적용하는 형태로 종합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서비스업종 자율적 에너지절약 참여 실시

국제유가의 고유가상황이 지속되고 석유의 안전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됐다. 종전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서비스업종에 대하여 영업시간 단축, 조명제한 등 에너지 사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였으나, 국민경제 및 국민정서에 반하는 강제적 에너지 사용 제한을 지양하고 업계의 설정에 맞게 자율적 참여에 의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율적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업종단체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백화점협회, 주유소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목욕업중앙회, 편의점협회등 12개 단체이다.

참여단체는 실내 냉난방 온도 기준 상향 조정, 실내조명 및 야간 외부 조명 감축, 영업시간단축, 휴무제 실시, 고효율 기기 교체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일 까지 자율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한 단체는 백화점협회, 자동차공업협회, 은행연합회, 체인스토어협회, 음식점중앙회, 편의점중앙회 등 6개 단체이다.

계획이 수립된 6개 단체가 자율실천하게 되면 연간 백화점협회 70억원, 체인스토어협회106억원, 음식점중앙회 84억원 등 총 281억원의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 올 가스냉방용 천연가스 26만 1000톤 예상

올해 가스냉방 보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약 26만1000톤의 냉방용 천연가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냉방용 천연가스 판매실적이 2003년에는 약 20만 3000톤, 지난해 24만2000톤으로 이를 RT(냉방톤)으로 환산하면 각각 21만 6000RT, 23만1000RT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약 26만1000톤을 공급해 약 25만RT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급된 23만RT는 이를 전력대

체 효과로 환산시 약 1109MW로 냉방전력부하의 8.9%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누적 가스냉방기 보급 목표 9200개소를 달성할 경우 이를 단순 수치상으로 환산하면 약 1200 MW가량의 전력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냉방 보급 확산을 위해 냉방용량 5RT이하에 대해 대당 250만원, 5~30RT에는 100만원, 30RT 초과시 RT당 1만원의 설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흡수식 가스냉방은 대형빌딩 및 산업체 등에 전기대체 냉방시설로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최근 본격적인 보급 단계에 들어선 GHP(Gas Engine driver heat Pump)의 경우 각 학교 시설 및 업무용건물 등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5RT급 이하 소형 가스냉방은 보급용량기준으로 2003년 대비 110% 급증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66억원의 가스냉방 지원예산을 편성지원제도의 안정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후 지원제도 변경 시 사전 예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초기시장이 안정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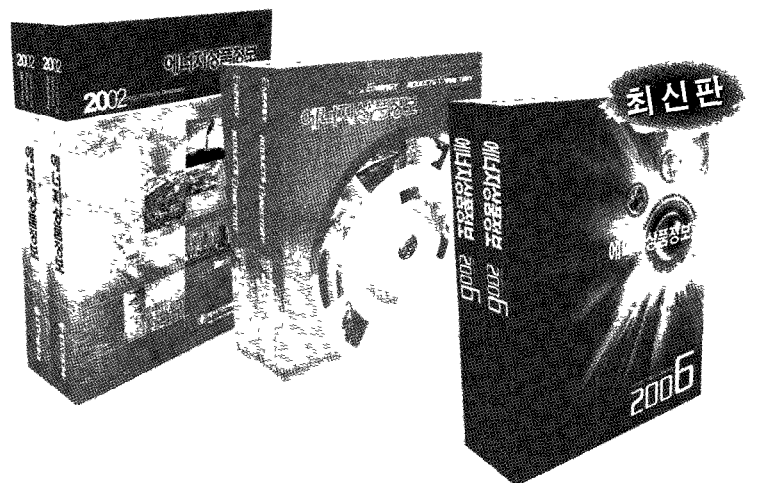
16RT급 GHP에 대한 가스공사의 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열요금 1.14%인상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료가격 변동에 따라 8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평균 1.14% (사용요금 1.27%)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요금 인상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고유가정책, 원유 추가 생산능력 부족, 정제시설 부족 및 동절기 공급 불안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연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역난방공사는 설명했다. 이번 열요금 인상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현행 71만7천원에서 72만5천원으로 평균 8천원 (약670원/월, 부가세 포함)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 강남, 서초, 분당, 고양 등 전국 12개 지사에서 공동주택 79만5천395가구와 건물 399곳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에너지상품정보」 모았다.

- 고효율에너지기기 및 에너지기술정보집 - 「에너지상품정보 2006」
- 2002, 2004에 이어 「에너지상품정보 2006」이 발간됩니다.



에너지상품정보 2006

* 「에너지상품정보 2006」은 9월말 개최되는 「2005 에너지전시회」에 맞춰 발간될 예정입니다.
* 현재 상품정보 광고게재 접수 중
문의 (02)2632-4254 (한국에너지정보센터 영업부)